

일 어

2013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多文化共生」とは、国籍や民族などの異なる人々が、互いの文化的違いを認め合い、対等な関係を築こうとしながら、地域社会の構成員として共に生きていくことです。少子化による日本人人口の減少、専門的・技術的分野における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の促進などの要因から、この割合は今後も増加すると見込まれています。これら外国人の多くは就労や婚姻などの理由で日本に生活の拠点を置いています。このような状況の中、私たち日本人の側も、外国人も住民の一人であることを理解し、共に理解・協力し合ってよりよい地域づくりを行っていく必要があるのです。外国籍の住民の一層の増加が見込まれる中、異なる文化的背景を持つ者同士が、共に協力し合って地域社会を形成していく多文化共生の推進は、住みよい地域づくりの面からも、また地域の発展という面からも重要です。(10점)

- 2) 사이버대책に責任を持つ内閣官房情報セキュリティ센터(NISC)は、主な警戒対象を大規模サイバー攻撃事態としてきた。そして、大量のデータを送ってホームページの閲覧を妨げる嫌がらせや、電力や交通などの公共機関の機能をまひさせるサイバーテロに重点をおいてきた。米国の取り組みがそうだったし、日本の過去の被害例も外交問題にからむ政府機関のシステムへの攻撃が目立ったため、やむをえない面はある。だが、次々に発覚しているのは、もっともらしい送信元の名前で、さもなりそうな題名のメールを送ってくる標的型の攻撃だ。結果的に死角を突かれてしまったのは確かだ。関係省庁を束ねて対処すべきNISCは今回、十分なリーダーシップが発揮できていない。被害をすぐに届け出なかった役所があったほか、警察や経産、総務、防衛など担当省庁の連携も薄く、ばらばらの感が強い。まずは、なぜ水際で止められなかったのか、これまでの取り組みを総点検する必要がある。同時に、もっと危機意識を高めることだ。標的型攻撃への最大の防御はとにかく怪しいメールは開かないことに尽きる。これを徹底するために希望する省庁だけに実施してきた訓練を、政治家や全省庁の職員に義務づけるべきだ。それとともに官民挙げて技術的な防護策の開発を急ぎ、政府一丸となった強力な対応策を練り直さねばならない。(15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 1) 한국과 일본은 같은 극동지역에 위치한다는 것, 양국 모두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르다.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을 비롯해서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철학, 종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야말로 우리와 다른 이웃 나라이다. 그러한 일본과 가까워지려면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들의 역사와 사회를 연구해야 한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도 한국이 21세기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12점)
- 2) ‘공공장소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합시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 사진촬영이 금지된 미술관 등에서 셔터 소리를 듣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쓰레기는 각자 가지고 감시다’라는 팻말 주위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주차금지라고 쓰여 있는 도로에 버젓이 불법주차한 자동차도 있다. 금연구역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다. 그런 규칙 따위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해도 괜찮다는 생각일까? 아니면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는 것일까?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가 남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과,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13점)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